

좌야리 '야자혈', 대학자·성현 태어나는 명당

(也字穴)

■ 함평의 명혈들

사람의 족보에 시조와 증시조가 있듯이 산도 그 근본이 되는 조종(祖宗)이 있는데, 풍수에서는 태조산(太祖山)을 조(祖)라 하고, 소조산(小祖山)을 종(宗)이라 한다. 그래서 혈이 맺힌 주산(主山)의 조종이 빠어나면 용(龍)의 역량이 크고, 조종이 빈약하면 혈의 성격도 전박한 것으로 본다.

함평의 진산이라고 할 수 있는 태조산은 불갑산(516m)이다. 불갑산은 본래 '모든 산의 어머니'라는 뜻의 모악산(母岳山)이었다. 백제 때에 중국의 '마라나타'라는 승려가 법상포를 통해 처음으로 이 땅에 불교를 들여온 다음, 모악산 기슭에 절을 짓고 천간(天干)의 '첫 번째'를 의미하는 갑(甲)을 붙여 '불교의 첫 불사(佛事)'라는 뜻의 '불갑사(佛甲寺)'로 이름을 붙였으며, 이 때부터 '모악산'의 이름도 '불갑산'으로 바뀌게 되었다.

불갑산, 조상에 대한孝心 빼어난 곳

그런데 함평의 손불면과 신광면 일대의 산세는 대체적으로 태조산인 불갑산 뒤를 돌아보는 듯한 회룡고조형(廻龍顧祖形)으로 발달하여 혈족간의 우애와 응집력, 그리고 조상에 대한 효열(孝烈)이 빼어난 곳임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손불면은 이런 회룡고조형으로 발달한 산세 때문에 '어린 손자 부처가 할아버지 부처에게 절을 올리는 형국'이라는 풍수적 지명을 얻게 된 연유가 되기도 한 것이다. 지금은 신광면에 속해 있지만 본래는 손불면이던 동지리 일대에 숨어있다고 전해지는 소위 손불배조형(孫佛拜形)이 사실은 회룡고조형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무튼 백자촌산(百子千孫)에 천년향화지(千年香火之地)로 널리 알려진 손불배조형의 명당은 '함평이씨'와 '김해김씨' 그리고 '함평노씨'등등의 집안에서 서로가 묘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산포의 박모씨가 수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신광면 좌야리의 '야자혈(也字形)'. 이곳에 묘를 쓰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대학자와 성현이 태어난다는 명당이다.

억의 돈을 들여 묘를 썼다고 소문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그 어느 집안에서도 발복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잡초만 무성한 봉분들을 살펴볼 때 오히려 석각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손불면 양재리의 모량 뒷산인 한세봉(漢世峰)의 갑묘(甲卯籠)에 모란꽃이 반쯤 피어있는 모양의 모란반개형(牡丹半開形)이 있고, 그 뒤편에는 곤좌간향(坤坐間向)의 회룡고조형이 아직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신광면 보여리(甫余里)의 옛 지명은 '부아골'인데, 개구리 한 마리가 물위에 동동 떠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파안의 미소를 지으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황새(학의봉)와 밤(구렁이재)

이 서로 싸우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형국의 부와형(浮蛙形)이 보전(甫田)의 들 가운데에 있다. 이 곳은 손신(巽辛)이 특립(特立)하고 삼양봉(三陽峰)이 가까워서 조응하여 발복이 대단히 빠르면서도, 정미수구(丁未水口)가 견쇄(堅鎖)하여 창고에 항상 재물이 가득 차 있는 형국의 대 명당이다. 다만 비습한 곳에 혈궁이 있어서 물을 피하기가 쉽지 않고 입향(立向)과 재혈(裁穴)이 난망하지만, 이를 만약에 천운으로 얻어 쓴다면 이 세상 어떤 재부와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또 그곳에서 멀지 않은 좌야리에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야자혈의 명당이 마을 뒷산의 종턱에 흠없이 자리 잡고 있다. 야자(也字)는 본래 모든

글의 끝에 붙어서 문장(文章)을 끝내는 어조사인데, 이곳의 야자혈(也字穴)은 두 번째 내리 가는 획의 끝 부분에 힘을 주어 마무리 하는 지점에 돌출(突起)로 맺어 있다. 이곳을 얻어 묘를 쓴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학자와 성현이 태어나 집안을 일으키고, 어지러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밖에도 삼덕리 새낙골(덕산마을)에는 속조투림형(宿鳥投林形)의 명당이 있고, 백운리 저들의 숙굴에는 개가 잠을 자는 모양의 면구형(眠狗形)이 있으며, 계천리에는 계수나무에 반달이 걸려있는 모양의 계지과월형(桂枝掛月形)이 마을 뒷산에 숨어있다. 대동면 월암리 산천에 있는 장군대좌형(將軍大坐形)은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나아가는 출진형(出陣形)으로서 갑좌경향(甲坐庚向)의 산정혈(山頂穴)이다. 이곳은 용장혈혈(龍壯穴)의 대혈로서 산세에 영웅이 태어나 세상을 호령하여 문묘에 배향(配享)되는 대지(大地)이다.

보여리, 창고에 재물 넘치는 형국

해보면 금곡리 금곡(琴谷)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사랑하는 남을 그리며 거문고를 타는 옥녀탄금형(玉女彈琴形)이 있고, 광암리 운암에는 구름속의 달이 얼굴을 반쯤 내밀고 있는 운중반월형(雲中半月形)이 높은 곳에 숨어 있다.

나산면 옥우리 오수(五水)근처에는 늙은 어부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옹산망형(漁翁散網形)이 강가에 숨어 있고, 수상리 월현(月峴) 뒷산에는 토끼가 달 속의 토끼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옥토망월형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엷다면 타문산(打文山)에 있는 나는 용이 하늘을 쳐다보는 모양의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이 상하(上下)로 결혈(結穴)하여 탈복(脫服)을 기다리고 있으며, 화교면 석정리의 화심형(花心形)은 당상골을 좌청룡으로, 동백골을 우백호로 하여 반월(半月體)에 의지하고 있다. 먼저 재산을 일구고 나중에 귀(貴)를 얻는 선부후귀형으로서 발복이 매우 빠른 곳이다. <끝>

전종주·호남대 교수·한국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무등산과 금성산

광주-나주지역 위상 놓고 지역민들 '山神 제사' 경쟁

고을마다 상징하고 자킴이 역할을 하는 산이 있다. 진산(鎭山)이라고도 불린다. 남도를 대표하는 고장인 광주와 나주의 무등산(1천 187m)과 금성산(452m)이 그 본본이다. 두 산은 증생대 백악기 말 화산활동으로 안산암, 유문암, 응회암이 굳어 형성됐다.

무등산은 호남정맥에 올라 영산강과 섬진강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다. 그 모양이 무덤같이 '무덤산', 무수히 돌이 묻혀 있어 '무돌산'이 한자로 옮겨질 때 불교사상과 연결되어 무등(無等)으로 표기됐다.

금성산은 장성 갈재(黨嶽)에서 연결된 태청산으로부터 남쪽으로 치달려 나주평야에 우뚝 솟아올랐다. 그 높이가 무등과 견줄 수 없지만 주위가 한 눈에 들어와 산성(山城)이 설치되었다. 나주의 '나(羅)'자 즉 '비단'이 다른 한자로 옮겨져 금성(錦城)이 되었다.



필도총도 여지도 중 전라도(1735년) 나주를 금성현으로 강등, 전광도로 표기하고 있다

옛 사람들은 산을 통하여, 인간이 하늘 즉 신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여겼다. 서로 산신을 모심에 있어 경쟁했다. 지역 토착세력까지 가세하여 고을의 위상을 정하는데 이용하려 했다. 영산강유역의 광주와 나주인들도 무등산신과 금성산신의 지위를 놓고 치열했다. 곧 라이벌이었다.

광주는 신라 때 도독이 설치됐고, 후백제 때 견훤의 도읍지였다. 나주는 고려 때 왕건세력과 연결되었다. 거란침입 때는 현종의 몽진처가 되더니 1018년 전주와 나주를 따서 '전라도'라 칭하기까지 했다. 이후 목(牧)이 모두 설치되어 계수관 역할을 했지만, 그 영역이나 호구수에 서 나주가 상위였다.

금성산 신사는 사당이 5개나 있었고, 팔관회와 관련되기도 했다. 삼별초토벌 때는 소재관으로 하여금 쌀 5섬을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했고, '정령공'이란 작위까지 내렸다.

광주인들은 1273(문종14)년과 1281(충렬왕7)년 무등산신을 봉작하고, 춘추로 제사를 올리도록 하는 등 우대 조치를 위해 주도록 조정에 요구해 관철시켰다. 관상김씨 김주정(金周鼎·?~1290)을 앞세워 이뤄냈다.

광주와 나주는 서로 여러 차례 읍호의 승격과 강등이 일어나고, 전라도의 명칭까지 변경되기도 했다. 불미스런 일로 광주목은 무진·화평·광산현으로 7차례, 나주목은 금성현으로 4차례 강등된다. 나주가 강등될 때 전라도 명칭은 광주나 남원을 넣어 '전광도'나 '전남도'로 칭했다. 1896년 13도제 관할부와 1910년 도청이 광주에 설치되었다. 오늘날 나주는 광주 인구의 10분 1에 불과한 위상도시로 전락했다. 곧 나주에 혁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금성산신 위상을 되살려 광주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까.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

■ 전라도 방언 (33)

“아이고매! 이게 뭐시지요?”

감탄사란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직접 나타내는 말이다. '아·앗·아이구·아·어허·허허' 따위가 같이 주로 구두어(입말)에 많이 쓰인다. 전라도방언에도 이런 감탄의 말이 다양하다. 전라도 출신 작가의 작품에도 갖가지 감탄사가 쓰였지만 짧은 지면이므로 출처는 생략하고 여기에 보태어 몇 가지 예만 들어 보기로 한다.

“아이! 풀잎 끝에 이슬 같은 초로인생. 아! 그것 참 기막힌 아이더녀네. 아이고! 어쩌다 저런 일이... 에이 참! 어제 저녁에는 너무 마셨어. 뭐메! 정상스런 것들도 다 있네. 와! 성님, 워따/워따메! 잘 허네. 윈! 별사람 다 보셨네. 워따메! 워따메! 워따메! 워따메! 아이고! 사람 죽겠다. 아이고매! 이게 뭐시지요? 아이야! 얼릉 풀어 가라게. 아이고매! 깜깜이야. 어

허! 점잔챙게... 허참! 그거 묘하네. 예! 이 사람아, 허허! 내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겼구만. 제기랄! 죄 없는 놈덜 배를 맡 것 이야? 워따메! 저 사람이 왜 저런 다냐? 아니! 너 어한 일이나? 아! 아이! 큰 일 날네. 흥! 내가 안 분 줄 아냐? 아이고! 오! 오! 오! 오! 어디 가서... 허허! 이거 집안이 어찌 될라고...” 등과 같다. </이문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절굿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산지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서 자라며 키는 90~150cm 정도.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7~8월이다. 어린잎은 나물로 먹거나 떡을 만드는데 활용하기도 하며 약재로 쓰인다. </리규재 생태사자간>

활력이 행복!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활력비타민. 페콤씨! 하루 2알 페콤씨와 함께 활력이 찬 미소를 준비하십시오.

Be Happy, 페콤씨!

아침·저녁 하루 2알

우리나라 우리가족의 힘- 페콤씨

www.k3sa.co.kr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112-380-1128> www.k3sa.co.kr